

# “예향 알릴 광주역사전시관 개관 준비 만전”

## 주인택 신임 광주시립민속박물관장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설립된 지 30년 만에 대변신을 앞두고 있다. 2018년 ‘광주역사전시관’(가칭) 개관을 목표로 올해부터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간다. 지난 1월 취임한 주인택(58) 신임 관장은 박물관 역사 산증인으로 불리며 리모델링을 추진할 책임자로 꼽힌다. 그는 20대 중반이던 지난 1983년 개관준비 상임위원부터 시작해 학예연구사, 학예연구실장을 거친 후 전문직으로서 최초로 관장직에 올랐다. 주 관장은 약 15년 전부터 광주역사전시관 건립을 꾸준히 역설했다. 광주는 크게 민속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이 있지만 타지역 사람들에게 광주가 왜 예향과 의향으로 불리는지 알려줄 공간으로는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박물관은 크게 민속과 역사 주제를 번갈아가며 기획전시를 진행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가 축적됐습니다. 광주역사전시관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약 94억원이 투입되는 역사전시관은 기존 상설전시실 1층을 광주역사, 2층을 남도민속 전시실로 꾸며 개관할 예정이다. 사진 등 유물 약 2200점이 전시된다. 기획전시실은 그대로 유지한다. 올해 예산 확보·설계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 공사 시작되며 공사 기간은 휴관할 예정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는 개관 5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기획전시 ‘웅기특별전’이다. 주 관장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웅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다. 광산구에 위치했던 삼서동 웅기마을을 조사하고 발굴한 자료를 타지역 웅기와 함께 전시했다.

주 관장은 “당시에는 기획전 자체를 일반 공무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 예산 확보도 어려운 시절이었다”며 “웅기가 크게 각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학적 효능이나 건강성을 부각시키며 꽤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떠올렸다.

약 1300여점이었던 소장유물은 현재 1만4000여점으로 늘어나고 한해 방문객이 30만명에 달하는 등 박물관은 많은 질적·양적 성장을 했다. 주 관장은 사람들이 지루해 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전시장을 꾸미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역사는 포장이고 문화는 내용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광주는 훌륭한 포장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리모델링 작업에 최선을 다해 후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전시관을 만들겠습니다.”

여수 출신 주 관장은 전남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조선대 겸임 교수를 역임했다. 광주시 문화재전문위원, 전남도 문화재위원, 광주 향토음식박물관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물관 산증인... 전문직 첫 관장  
“기획전시로 쌓인 자료 활용  
부끄럽지 않는 전시관 꾸밀 것”

역사전시관 올해부터 리모델링  
내년부터 본격 공사 2018년 개관



지난해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개최한 기획전시 '1798년 광주의 과거시합' 전시장 모습.

## 민속박물관 올 어떤 행사 열리나

지난해 '1798년 광주의 과거시합' 등 흥미로운 전시를 기획했던 박물관은 올해도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

오는 4월28일부터 열리는 '광주 청년, K씨의 삶'은 광주 청년을 중심으로 1970~80년대 격변하는 광주 현대사를 조명한다. 당시 사진, 사용했던 물품을 통해 교육, 생활문화, 생업 등 광주 청년들의 삶과 생활을 소개한다.

10월에는 '오딧세이 광주 120년' 기획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는 지난 1986년 전남관찰부(도청) 소재지로 선정되며 서남부지역 행정중심지가 됐다. 선정 120주년을 맞아 도시 역사, 변천사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교육 프로그램

## ‘오딧세이 광주 120년’ ‘광주 청년 K씨의 삶’ 기획전시 문화유산 강좌, 공예·분청 교실... 지역문화 책 출간도

도 진행된다.

3월부터는 제21기 광주민속박물관 대학을 운영한다. 올해는 5개년으로 계획된 '한국의 유산 시리즈' 세번째 강좌다. 문화유산 강의, 현장답사 등을 진행하며 수강 접수는 22일부터 3월10일까지다.

10월에는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공예교실이 열린다. 8주 과정으로 다종이를 활용한 다양한 생활 공예품을 만들어본다.

매년 진행되는 '담병정병 분청교실'도 찾아온다. 10월8일부터 11월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무등산 분청사기전시실, 가마터 견학, 전문 도예인이 함께하

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3~5월, 9~11월 '행복한 토요일교실', 7월 '역사문화산책'을 운영한다. 토요일교실은 민속공예, 우리나라 바로알기, 생태마을 탐방으로 구성되며 역사문화산책은 전통문화, 역사에 대해 교육한다.

그밖에 박물관은 '한국의 유산 시리즈III'와 '양동시장의 역사와 삶' 등 지역 문화를 살핀 책을 발간할 예정이다. 1960년대 자취를 감춘 태봉산과 경양방죽에 관한 자료도 수집·정리한다. 문의 062-613-536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관습에 갇힌 자아 찾기

## ‘新청춘스토리’ 18~24일 갤러리D ‘시작을 그리다’展

지역 청춘 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셜네트워크 커뮤니티 新청춘스토리가 18~24일 갤러리D에서 ‘시작을 그리다’를 주제로 전시를 연다.

참여작가 5명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한국화, 서양화, 조각, 콜라주 등 실험적이고 신선한 작품들을 보여준다.

작품 ‘생각으로 꽃을 피우다’는 서다민 작가의 자화상이다. 작가는 그동안 보았던 것만을 보려는 타성을 깨기 위해 얼굴 반쪽 모습을 꽃으로 덮은 머리카락으로 가렸다. 새로운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의 시선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자 했다. 또 다른 작품 ‘뜰을 깨다’는 사각의 패턴 안에 갇힌 작가의 습관을 그렸다.

jun 작가의 작품 ‘전공 책을 찢다’는 실제 책을 찢어 화면을 가득 채운 콜라주 작품이다. 책을 찢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이 작품은 뜰에 막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작가의 고백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새로운 시작은 과감한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지난 2014년 설립된 新청춘스토리는 ‘Draw my Life : 내 삶을 그리다’, ‘나를 디



서다민 작 '생각으로 꽃을 피우다'

자인하다', '청춘행세', '나를 위한 시간'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청년문화 저변확대에 힘쓰고 있다. 문의 062-222-801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oh! 友 도화현’

## 고흥 도화현미술관 28일까지 레지던스 작가 전시



안유자 작 'life story'

고흥 도화현미술관이 지난 5년간 레지던스 작가들의 결과물을 공개하는 'oh! 友 도화현'전을 2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Marciano Martinez, 강동호, 김영양 등 국내외 작가 30여명이 미술관에 거주하며 작업했던 회화, 조각, 도자 등 작품을 선보인다.

김영양 작가는 미술관과 주변 풍경을 형상화한 '도화현'을 그렸고 안유자 작가는 LED 조명으로 불꽃놀이를 묘사한 'life story'를 작업했다. 작가들은 고흥반도 끝자락에 위치

한 미술관에 머물며 남도 풍경, 사람, 정서를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했다.

지난 2000년 개관한 도화현미술관은 매년 10회 이상 기획전시, 지역민 대상 예술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작가들을 양성·지원했다. 현재 레지던스 작가들은 광주 등 지역을 비롯해 서울, 부산, 제주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1-832-133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외국인들에게 더 사랑받는 가장 제주다운 리조트

### 환상의 섬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힐링하는곳!

가족, 연인, 기업워크숍, 수학여행단 등 **예약 064-739-889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록로 1992-24 (영남동 25-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록로 1992-24 (영남동 25-4)

**제주아이브**

동나무 독채형객실	편안드넓은 휴식을 직접 수입하여 정성껏 시공한 프라이빗한 동나무 독채형객실
레지던스형객실	바다전망과 2인스파클 보유한 레지던스형 리조트 타입의 객실
골프투어 최적지	레이크힐스cc, 우리들cc, 롯데스카이힐스cc, 핀크스cc, 4개골프장 5분거리, 골프투어 최적지(단, 차량이동시간임)
한라산등반 최적지	한라산 영실코스 15분, 성판악 차장으로 25분 소요, 한라산 등반 최적인 입재단, 차량이동시간임)
쇼핑의 편리	중문관광단지 10분, 서귀포 시가지, 이마트&홈플러스 15분(단, 차량이동시간임)
얼리버드이벤트	주중 30%, 주말 20% 할인(객원, 성수기·혼성수기·연휴기간 제외)
렌트카 90% 할인	별라 15명 동나무환율 1박 + 15 or YF소나타 24시간 70,900원(바우처 기준)
단체수요 시설안내	300명 단위의 기업단체 및 수학여행단, MCE가능, 50인 수용 가능한 최신 워크숍룸 원비, 150인 수용가능한 아이브를 원비, 조·중·석식가능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